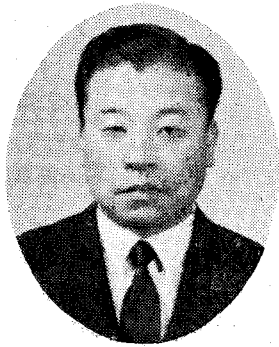


韓國 시멘트工業 小史



韓國 洋灰工業協會
理事·企劃管理部長

金 正 燮

輸入에 依存하던 시멘트는 第1次 및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으로 시멘트工業의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오므로써 이제 國內需要는 國內生産 量으로 充分히 供給可能하며, 第2次經濟開發計劃의 最終年度인 71年度 에는 年間 生産能力이 1200萬噸線에 이르게 된다.

搖籃期

現代經濟社會의 寵兒인 시멘트(Portland Cement)는 19世紀 英國에서 軋트기 始作하여 産業革命遂行을 促進시켰다. 19世紀中期엔 佛蘭서, 독일, 미국등지에서도 시멘트工場이 建立되어 産業發展을 더욱 促進시켜 資本形成의 確固한 基盤을 이룩하였고 오늘날의 先進國으로의 成長을 뒷바침 했던 것이다.

시멘트는 이와같이 한나라의 産業建設에 必要不可缺한 資材가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日常生活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어 國民生活水準을 評價하는 價値基準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멘트가 처음 紹介된것은 19世紀가 저물어가던 李朝末葉이었다. 當時 封建體制下에서 孤立된 우리나라의 産業形態란 原始形態를 약간 脫皮한 第1次産業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더우기 近代의 工場이란 生覺조차 할수 없는 處

地였다.

이러한 狀況에 우리나라는 日本 및 歐美先進諸國의 商品販賣市場으로 登場하게 되었으며 그중 특히 우리와 隣接한 日本의 눈독은 더욱 極甚하게 機會만 보고있었다. 그러던 時期에 他意에의 한 門戶開放으로 앞을 다투어 浸透한 日本은 侵略을 위한 建設을 마련하기 始作하였다.

1900年代를 前後한 京仁·京釜兩鐵道가 敷設着工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시멘트(日本産)가 첫 선을 보였고 近代의 工業을 育成시키지 않는다면 日本의 對韓經濟政策으로 1919年 平壤工場이 竣工될 때까지 每年 日本으로부터 2~5萬噸정도의 시멘트를 輸入하였던 實情이었다.

우리나라에 시멘트工場이 처음 着工된 것은 1917年 小野田시멘트株式會社가 平壤附近 勝湖里에서 였으며, 1919年末 年間 約 6萬噸 生産能力을 가지고 竣工되었다.

계속된 1·2·3次擴張工事が 完了된 1936年엔 年産能力이 約 30萬噸으로 제법 規模를 갖춘 大

工場이 되었다.

1928年 小野田시멘트株式會社는 다시 威南德源附近 川內里에 年産 139,000톤의 施設을 完成하였다.

2個의 大工場이 建立되고 또다시 擴張되었으나 日本의 大陸侵略의 兵站基地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産業建設분이 形成되어감에 따라 增大되는 國內需要의 充足에 미치지 못하여 每年 日本시멘트를 輸入하였다.

시멘트工業은 完全히 日本의 小野田시멘트의 獨占舞臺가 되었다.

當時 日本內의 시멘트工業의 不況을 克服하기 위한 措處로 淺野시멘트株式會社는 黃海道 鳳山에 年産 18萬톤 規模의 工場建設을, 宇部系의 朝鮮시멘트株式會社는 黃海道の 海州와 馬洞에, 朝鮮鴨綠江水電會社는 平壤에, 朝鮮小野田시멘트會社는 威北 古茂山에 各各 工場을 設立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工業을 獨占掌握하던 小野田시멘트는 地位를 더욱 強化하기 위하여 三陟에 年産 84,000톤 工場을 1942年 7月 竣工하였다. 이것이 東洋시멘트工業株式會社의 前身인 三陟工場이었으며 解放으로 南韓에 남게된 唯一한 시멘트工場이다. 나머지 7個工場을 北韓地域에 남게되었으며 이들의 年間總生産力은 約 170萬톤에 達하였다.

1945~1961

1945年 日本이 降伏하고 38線으로 南北韓이 分離됨으로 三陟시멘트工場 하나만이 南韓에 남았으며, 1957年 聞慶시멘트工場이 竣工될때까지 生産을 專擔하게 되었다. 그러나 2次大戰末期의 無理한 稼働으로 機械故障과 左翼分子들의 策動과 電力難, 原料 및 資金難으로 거의 工場機能이 麻痺되었었다. 이러한 混亂의 틈바구니속에서 政府管理企業體로 登壇한 三陟시멘트製造公社는 몇 차례의 經營陳이 改編되어 1950年初 겨우 收支均衡을 維持하여 더욱 生産에 拍車を 加하던중 6·25動亂이 勃發하여 모든 努力과 計劃은 무너

졌고 莫大한 打擊을 입었다. 他産業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打擊은 우리의 손으로 시멘트工業面貌를 갖출 時期에 또다시 沈滯狀態가 始作되었다.

1953年 UNKRA 援助資金으로 工場補修와 資材를 導入함과 아울러 年間生産 12萬톤을 計劃하였으나 實績은 그 折半에 不過하였다.

政府管理企業體의 民營化方針에 依據 1956年 1月 三陟시멘트製造公社는 三陟시멘트株式會社로 姜直淳氏에게 拂下되었다. 機械設備의 老朽, 勞使紛糾로 因하여 生産은 더욱 低調하여 經營難에 逢着하여 1956年 12月 三陟시멘트製造會社는 東洋製糖工業株式會社에 賣渡되었으며, 이듬해 東洋시멘트工業株式會社로 改編하여 現李洋球社長이 所有權과 運營權을 移讓받았다. 當時 우리나라의 經濟的與件으로 보아 國家基幹産業인 시멘트工業의 民營化가 어려웠으나 東洋시멘트의 不屈의 努力은 모든 惡條件을 除去하여 오늘의 大規模工場으로 擴張하였다.

休戰協定이 締結되어 6·25로 破壞된 諸産業의 復舊作業에 있어서 시멘트需要量이 더욱 增大될 것을 豫想한 政府는 莫大한 需要量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던 것을 是正하여 外貨를 節約하기 위해서 國內生産施設의 擴充을 圖謀하게 되었다.

1954年 UNKRA에선 年産 10萬톤 規模의 工場建立을 政府와 合意를 보게되었으며 政府에선 그後 年産 20萬톤 生産規模로 擴張할 것을 企圖하여 1955年 11月 慶北聞慶에서 起工하였다.

三陟工場이 東洋시멘트로 賣渡된 것과같은 時期에 聞慶工場은 開豐商社의 李庭林氏에 拂下되어 工場建設은 順調로히 進行되었고 1957年 9月에 竣工을 보았다. 이것이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이며, 이로써 시멘트年間總生産能力이 27萬톤에 達하였으나 國內需要量의 約折半밖에는 供給할 수가 없어 두工場은 補修 및 擴張工事に 總力을 기울이기 始作했다.

東洋시멘트는 1957年初 第1次 大補修工事を 3個月에 끝맺어 年産 18萬톤으로 다시 1961년에 施設擴張工事を 完了하여 年産 36萬톤으로 大幅 增強하였다.

大韓洋灰도 1961年 다시 年産 16萬톤 規模의

施設追加를 보아 東洋과 같이 年産能力 36萬톤으로 增加되었다.

시멘트 國內生産이 短時日內에 急激하게 增加되었지만 需要 역시 生産增加率以上으로 激增하여 아직도 相當量의 日本시멘트가 國內市場에 氾濫하고 있었다.

同一規模의 兩세멘트會社의 販賣過程에 있어서 東洋세멘트는 三陟工場이 臨海地區에 立地하였다는 特殊條件을 利用하여 各地方 港口都市에 그들의 特約店을 重點적으로 設置하였고, 大韓洋灰는 1963年 西永庫에 日間生産能力 600톤을 粉碎할 수 있는 크랑카粉碎工場을 設置하여 서울에서의 販賣基盤을 堅固히하고져 했다.

1962年 以後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事業으로 1962年 4個의 新規 시멘트工場이 着工되었다. 當時 需給面에 相當量의 供給不足과 他産業에 比해서 훨씬 希望의 이라는 點과 海外販路등 여러가지 有利한 與件때문에 新規4個 시멘트工場建設이 急速度로 推進되었다.

1964年 3個의 시멘트 工場이 차례로 竣工되어 解放後처음으로 國內需要量을 超過하여 小規模의 이지만 海外輸出 및 軍納이 이루어졌다.

既存 2個會社와 新設 3個會社— 40萬톤 年産規模의 雙龍洋灰株式會社와 韓一시멘트工業株式會社 年産 20萬톤 規模의 現代建設株式會社—의 年間總生産能力은 172萬톤에 達하여 解放前 南北韓을 合한 生産能力과 同一하였다.

1965년에는 外資導入에 의한 各種設備投資活動이 事實上 本格的인 段階에 들어가 需要增加趨勢는 從前보다 越等히 凌駕하여 1966年엔 또

다시 相當量의 外國産시멘트가 輸入되었다.

1次計劃의 마지막해인 1966年末 年産 40萬톤 能力의 忠北시멘트 工業株式會社가 竣工하여 시멘트工業은 計劃에 蹉跌없이 量産體制를 갖추었고 國家基幹産業으로서 祖國近代化에 寄與하게 되었다.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의 初年度인 1967年엔 各社의 擴張 및 改補修工事が 이루어졌다. 東洋세멘트가 施設을 倍加하므로써 年間生産能力이 72萬톤에 이르렀고 韓一세멘트가 改良工事を 完了하여 年産 10萬톤을 追加한 50萬톤規模로, 雙龍洋灰가 30萬톤 擴張工事を 完成하여 年産 70萬톤으로 生産能力이 急增하였다. 그러나 需要 역시 生産能力을 壓倒하여 여러차례 시멘트品貴現象을 일으켰고 53萬톤에 達하는 莫大한 量의 시멘트를 輸入하기도 하였다.

國産시멘트價格의 非現實的인 價格政策과 日本시멘트의 大量免稅延拂特惠輸入으로 因한 6個 시멘트會社는 1967年에 이르러 莫大하 打擊을 받았던 것은 事實이다.

1968年 10月에는 雙龍洋灰의 東海工場이 新設(年産 170萬톤)되었고 年內에 現代建設의 20萬톤 增設과 大韓洋灰의 12萬톤 增設이 이루어지므로 1968年度에 劃期的인 生産力增強을 成就하였다.

第2次5個年計劃이 끝나는 71年度에는 우리나라 시멘트工業展望은 밝아오고있다.

69年度의 韓一세멘트 50萬톤 增設, 星信化學의 100萬톤 新設, 70年度의 現代建設의 60萬톤 增設, 忠北시멘트의 60萬톤 增設, 雙龍의 東海工場擴張, 高麗시멘트의 66萬톤 新設, 其他等等으로 71年度엔 年間總生産能力이 1200萬톤線을 上廻하므로써 國內需要를 充足하고도 相當量을 東南亞市場으로 輸出하게 될 것이다.